

우리의 삶에 주어진  
예수님의 누가복음 5:3 부르심

BY TODD MORR



[WWW.MISSIONALMADESIMPLE.COM](http://WWW.MISSIONALMADESIMPLE.COM)

## 우리의 삶에 주어진 예수님의 누가복음 5:3 부르심

지난 한 해, 누가복음 5 장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장이 되었다. 나는 누가복음 5 장을 가지고 제자들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를 교회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시킨다. 제자들의 가족이란 더 많은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 제자들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삶

누가복음 5 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의 삶에 주시는 3 가지 중요한 부르심을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권위를 드러내시는 강력한 기적을 행하시는 것으로 누가복음 5 장을 시작하신다. 이 기적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 만지신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전날 밤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노력했지만 허탕친 능숙한 어부들을 도우사 지금까지 그들이 잡아본 물고기 양과는 비교도 안되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하신다.

이 기적 이후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그물, 그들의 직업, 그들의 가족,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 삼으라는** 첫번째 부르심을 주신다. 동일한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우리의 "그물들"을 내려놓은 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 삼는 부르심이 주어졌다.

### 공동체 안에서 가족으로 살아가기

두번째 부르심은 직접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었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 또한 이 부르심을 취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 전부가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르지 않으셨다. 가족으로서 사는 공동체로서 따라오도록 명하셨다.**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이 고백하듯이 그들의 랍비, 교사가 되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함께" 따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법을 "함께" 배웠다. 예수님의 두번째 부르심은 예수님이 중심인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은 공동체적이며 가족적 부르심이다. 이것은 개별적이거나, 고립되어 있거나, 개인적인 부르심이 아니다.



## 사람을 낚는 선교적 부르심을 가진 가족의 삶

마지막으로 10 절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세번째 부르심을 명확하게 주신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가족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부르심을 주셨을 뿐 아니라 사람을 낚는 선교적 부르심을 가진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

10 절에 예수님은 예수를 따르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신다.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될 것이고 우리는 함께 낚시를 할 거야! 우리는 어부 가족이 되어서 잃어버린 자들, 깨어진 자들을 제자 삼는 일을 함께 할거야!**

이 세번째 부르심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비전을 주신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동일하다. 동일한 삶의 부르심을 주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기 원하시며, 다른 제자들과 가족과 같이 살기를 원하시고,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들을 제자 삼는 어부 가족으로 함께 일하며 살아가길 원하신다.

## 세가지 부르심을 경험하기

예수님께서 위의 세 가지 부르심을 주시고 나서 11 절에서 일어나는 일이 참 멋지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6-12 개월짜리 제자훈련 코스를 시작하지 않는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마을을 떠나서 함께 사람 낚기를 시작한다! 즉각적으로!

**예수님은 부르심을 주시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하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자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돌보아야 하는지, 질문이 많은 사람들 혹은 심지어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씬은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어떻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그 시대에 최악의 사람들로 여겨진 레위와 그의 세리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야하는 직접 보여주신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을 제자 "공동체"로서 어떻게 함께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와 그의 제자들이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지,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주신다. 병자와 죄인 된 사람들에게 치유를 가져오는 것! 건강한 사람들은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병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날 우리와 우리의 교회에게 이  
동일한 세가지 중요한 부르심을 주고 계시다!

